

勞 動 經 濟 論 集
 第28卷(2), 2005. 8, pp. 1~2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류장수**

본 연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현상, 지방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에서는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모두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였는데,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주제어 : 지방대학 졸업생, 수도권대학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
 지역혁신, 첫 일자리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3-002-B00025).

** 부경대학교(jsryu@pknu.ac.kr)

I. 문제의 제기 : 연구 필요성과 선행 연구

2005년 4년제 대학(교육대 제외)과 전문대학의 정원이 사상 최대규모인 15,701명 감축된다. 대학이 6,104명, 전문대가 9,597명이 감소됨으로써 2005년도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2004년 35만 9,418명에서 35만 3,314명으로, 전문대의 입학정원은 2004년 27만 7,223명에서 26만 7,626명으로 줄어든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보면, 두 권역간의 감축인원은 큰 차이를 보고 있다. 즉 수도권대학에서 1,203명, 비수도권대학에서 14,498명이 감축할 것으로 결정되어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대학이 이미 위기 속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 운영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는 미충원율이 지방대학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향후 그 속도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방대학의 자구 노력은 먼저 정원의 감축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결과 위기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의 경우 절대적인 일자리수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중으로 지역의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남아 있는 인력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수도 적었으며 일자리의 질도 높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질 저하는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맞게 되었다. 지방의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는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 그리고 지방대학 위기의 현상을 동시에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 중 하나가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측면이다.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낮을 경우 우수한 인적자원이 지방대 진학을 기피함으로써 지방에는 해당 지역 발전을 견인할 우수 인재 부족 현상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저위성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동수요측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면도 강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 현상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정확히 분석해 내는 연구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유럽 및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의 연구에서도 지역의 대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과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활용·배분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해당 지역대학이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등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을 분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류장수, 2005: 234~238). 특히 지역발전과 지역대학 간의 역할 혹은 기여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1990년대 말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OECD는 지역밀착적 교육,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가 지역대학의 세 가지 역할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역할의 수행을 통해 지역대학 발전과 지역혁신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OECD, 1999a).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OECD의 이러한 연구는 이제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사례연구 및 국가간·지역간 비교연구로 진행되고 있다.¹⁾

앞의 선진국 및 OECD와 같이 지역혁신을 위한 인적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최근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실시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인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도 최근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류장수(2003a, 2003b)와 이병희(2005) 등을 들 수 있다. 류장수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낮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노동시장 성과지표는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이행기간,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수준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한 이병희의 연구도 류장수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맺고 있다. 본 논문은 류장수의 연구(2003a, 2003b)를 발전시킨 연구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자료를 추가하였으며,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지방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구분한 모형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대학의 발전, 더 나아가 지역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도 본 연구의 부차적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현상을 살펴보고(제II

1) OECD는 OECD(1999a)의 기본연구를 기초로 2005년 초부터 OECD 가입국 중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이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장), 지방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제Ⅲ장)과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제Ⅳ장)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Ⅱ. 지방대학의 위기

1.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지방대 미충원율의 급증

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04년도에는 대학입학 대상연령인 18세 인구가 63만 명으로 현재 대학 입학정원 65만 5천 명보다 적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경에는 약 47만 6천 명으로 현 대학정원의 75.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백성준·류장수, 2004: 138; 류장수, 2003a: 8). 이러한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다른 사정이 일정하다면 대학정원의 대규모 미달 사태를 야기할 것임에 틀림없다.

2004년 이후 5년간과 2016년 이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 입학자원을 기초로 할 때 대학 미충원율 문제는 대학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핵심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이젠 상식으로 되어 버린 대학 입학자원들의 지방대 기피현상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나. 지방대학 미충원율의 급증

전문대학은 물론이고 4년제의 경우에도 지방대는 해당 지역출신 고졸자들의 수도권대학 선호 및 이동으로 이미 높은 미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03년과 2004년의 지방대 미충원율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4년제 일반대 미충원율의 전국 평균은 11.7%였으며 전문대의 미충원율 전국 평균은 18.7%였다. 그런

〈표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미충원율:수도권/지방, 국립/사립 대비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년제	국립	수도권	1.56	0.08	3.42	2.26	3.16
		지방	2.57	2.57	5.77	5.86	5.71
	사립	수도권	1.17	1.50	2.30	2.45	2.10
		지방	4.69	3.28	9.33	18.14	18.50
전문대학	수도권		0.01	0.01	0.03	1.34	1.96
	지방		6.61	2.37	11.80	26.26	27.95
	국립		4.56	0.98	6.17	9.09	12.18
	사립		4.40	1.60	7.87	17.98	19.00

자료: 이주호 의원실, 「시도별 대학 미충원율 분석」, 보도자료, 2004. 9.19.

데 수도권대학의 미충원율은 4년제 일반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각각 2.1%, 3.16%, 1.96%에 불과하였으나,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4년제 국립대 5.71%, 4년제 사립대 18.5%, 전문대 27.95%로 수도권대학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 우수 인력의 지방 유출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개발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비수도권 지역 우수 인적자원들은 1, 2, 3차에 걸쳐 수도권으로 유출되는데, 1차로 지방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하고, 2차로 지방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대학에 편·입학하며, 3차로 지방소재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 직장으로 유출되고 있다.

〈표 2〉 수능성적 상위 5% 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 상황:1999

	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	서울소재대학 진 학 자	비율(%)
인 문 계	20,567	14,113	68.62
자 연 계	16,832	9,639	57.27
예·체능계	4,614	2,489	53.94
전 체	42,013	26,241	62.46

자료: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p.119.

<표 2>를 보면 1999년에 수능성적 상위 5% 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자 비율은 인문계 68.62%, 자연계 57.27%, 예·체능계 53.94%, 합계 62.4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우수한 고교졸업자의 상당수가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성적 상위 졸업자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실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2003학년도 수능성적 4%(1등급) 이내 성적자의 대학진학자 중 입학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68.8%가 수도권대학에 입학하였으며 나머지 31.2%만이 지방대학에 입학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b).

<표 3> 수도권 일반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 출신자 현황

(단위: 명, %)

	수도권대학 출신자	지방대학 출신자	전 체
2000년 1학기	826(38.7)	1,306(61.3)	2,132(100.0)
2000년 2학기	713(44.5)	889(55.5)	1,602(100.0)
2001년 1학기	2,190(60.3)	1,440(39.7)	3,630(100.0)

자료: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일반대학은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

<표 4> 대학졸업 후 첫 번째 취업시 지역 이동 현황

(단위: 명, %)

			사업장 지역		
			전 체	수도권	지방
출신대학 지역	수도권	전 체	2,009(100.0)	1,818(90.5)	191(9.5)
		이공계	836(100.0)	720(86.1)	116(13.9)
		경상계	303(100.0)	285(94.1)	18(5.9)
		인문사회	550(100.0)	516(93.8)	34(6.2)
		기타	320(100.0)	297(92.8)	23(7.2)
	지방	전 체	1,791(100.0)	573(32.0)	1,218(68.0)
		이공계	876(100.0)	283(32.3)	593(67.7)
		경상계	210(100.0)	71(33.8)	139(66.2)
		인문사회	371(100.0)	107(28.8)	264(71.2)
		기타	334(100.0)	112(33.5)	222(66.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원자료, 김형만·류장수·장원섭·강영호,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을 위한 지방대생 민간기업 취업현황 파악 연구』, 2004, 미발표 보고서.

그리고 수도권 일반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학 출신자 비율은 2000년 1학기에 61.3%, 2000년 2학기에 55.5%, 2001년 1학기 39.7%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수도권 지역 우수 인적자원들의 2차 유출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을 본 연구는 지방 고급인력의 2차 이동으로 정의한다.

지방인력의 수도권으로의 3차 이동을 대학졸업 이후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규정할 때, 최근의 한 조사를 통해 그 숫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3년 10월에 일반대와 전문대 졸업생 전체 14,026명(일반대 졸업생 7,543명, 전문대 졸업생 6,483명)을 대상으로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2002년 2월에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 중 교육대학을 제외한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 7,398명을 대상으로 대학졸업 후 첫 번째 취업시 지역이동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대 졸업생의 32.0%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었다. 이들 32.0%의 질적인 구성은 여기에서 분석되지 않았지만, 우수한 지방대 졸업생의 수가 적지 않다는 사실 설정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Ⅲ.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

1. 이용자료 및 표본의 특성

가. 이용자료

본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의 「제1차 청년패널조사」(2001년)와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중앙고용정보원은 2001년과 2002년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부가조사 형태로 「청년패널조사」를 병행하였는데, 2001년에 실시된 「제1차 청년패널조사」는 만 15~29세 청년층 8,296명을 대상으로 교육·직업선택 및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 역시 조사 당시의 만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질문을 통해 청년층의 교육·직업선택, 노동시장 이행, 직장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절에서 분석하는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은 전술한 두 자료 중 최근 자료인 2002년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절의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이전 연도인 2001년의 「제1차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노동시장 성과 분석은 대졸 이후 첫 일자리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2002년 설문지에서는 2001년에는 대졸자가 아니었지만 2002년에는 대졸자로 된 조사 대상자의 첫 일자리 분석에 적합한 문항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2001년과 2002년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다음 절에서 사용할 「제1차 청년패널조사」의 표본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절에서 사용할 「제2차 청년패널조사」의 표본설계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1차 청년패널조사」 표본재설계 의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²⁾

먼저,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및 재학 여부에 따라 조사된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설문 응답자 3,588명 가운데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632명을 추출하였다.³⁾ 그리고 이 중 교육수준 정보의 오류, 학교 입학 혹은 졸업 연도의 누락, 군 입대의 경우 입대 혹은 제대 연도가 누락된 자료 등을 제외하였다. 또한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분석 취지에 맞추기 위해 입학 전에 첫 일자리를 가졌거나 졸업하기 1년 이전에 첫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이미 노동시장 경험을 가진 노동자의 계속교육일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학 졸업생 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해외대학 졸업생들을 제외하였고, 의약계열, 사범계열 등 졸업증이 사실상 입직 자격증 역할을 하는 계열의 졸업생들도 제외하여 최종 1,116명의 표본을 구축하였다.⁴⁾

「제2차 청년패널조사」의 표본설계는 기본적으로 「제1차 청년패널조사」의 표본설계 과정과 동일하며, 다만 2002년 조사 당시에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 분석대상 조사항목에 오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이루어졌다. 최종 표본은 861명이었다.

2) 본 연구의 표본설계 과정과 연구방법론은 이병희(2003)의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병희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3) 「제1차 청년패널조사」의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그리고 미취업자로 대별된다. 이들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설문지가 만들어졌으며, 해당되는 설문지에 대해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 졸업생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5가지로 분류된 대상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계열별로 보면, 결국 본 연구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계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표본의 주요 특성

2001년의 경우 전체 1,116명의 표본 중 수도권대학 졸업생수는 338명(30.3%)이며 지방대학 졸업생수는 778명(69.7%)이며, 지방 중에는 영남권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호남권, 충청권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61.4%가 여성, 38.6%가 남성이며, 학력별로 구분할 경우 전문대졸자가 45.0%, 4년제 대졸자가 55.0%이다. 전공계열의 분포를 보면, 인문계열 27.5%, 사회계열 21.5%, 그리고 이공계열이 51.0%이다.⁵⁾

2002년의 표본 861명 중 수도권대학 졸업생수는 301명(35.0%)이며 지방대학 졸업생수는 560명(65.0%)이다. 그리고 남녀 비중은 각각 42.6%와 57.4%이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자가 48.4%, 4년제 대졸자가 51.6%이다. 전공계열의 분포를 보면, 인문계열 25.9%, 사회계열 20.1% 그리고 이공계열이 54.0%이다. 이처럼 2002년의 표본 특성과 2001년의 표본 특성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본의 특성 및 분포

(단위: 명, %)

	2001								2002							
	성		학력		전공계열			전체	성		학력		전공계열			전체
	남자	여자	전문대졸	대졸	인문	사회	이공		남자	여자	전문대졸	대졸	인문	사회	이공	
수도권	129 (38.2)	209 (61.8)	141 (41.7)	197 (58.3)	109 (32.3)	69 (20.4)	160 (47.3)	338 (30.3)	134 (44.5)	167 (55.5)	144 (47.8)	157 (52.2)	85 (28.2)	64 (21.3)	152 (50.5)	301 (35.0)
지방	302 (38.3)	476 (61.2)	361 (46.4)	417 (53.6)	198 (25.4)	171 (22.0)	409 (52.6)	778 (69.7)	233 (41.6)	327 (58.4)	273 (48.8)	287 (51.2)	138 (24.6)	109 (19.5)	313 (55.9)	560 (65.0)
영남	146 (35.5)	265 (64.5)	212 (51.6)	199 (48.4)	108 (26.3)	92 (22.4)	211 (51.3)	411	98 (36.6)	170 (63.4)	140 (52.2)	128 (47.8)	71 (26.5)	59 (22.0)	138 (51.5)	268
호남	79 (42.7)	106 (57.3)	82 (44.3)	103 (55.7)	42 (22.7)	37 (20.0)	106 (57.3)	185	75 (47.2)	84 (52.8)	68 (42.8)	91 (57.2)	34 (21.4)	26 (16.3)	99 (62.3)	159
충청	55 (42.6)	74 (57.4)	43 (33.3)	86 (66.7)	36 (27.9)	28 (21.7)	65 (50.4)	129	47 (43.9)	60 (56.1)	50 (46.7)	57 (53.3)	30 (28.0)	18 (16.8)	59 (55.1)	107
전체	431 (38.6)	685 (61.4)	502 (45.0)	614 (55.0)	307 (27.5)	240 (21.5)	569 (51.0)	1,116 (100)	367 (42.6)	494 (57.4)	417 (48.4)	444 (51.6)	223 (25.9)	173 (20.1)	465 (54.0)	861 (1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2002.

5) 이하,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구분없이 대졸이라고 언급할 때에는 전문대졸과 대졸 모두를 포함한 의미를 나타낸다.

2. 현 직장으로의 이행과정 - 구직정보 취득경로

「청년패널」에서는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었던 경로를 1, 2, 3 순위까지 질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1 순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자 전체의 결과를 보면, PC통신 및 인터넷(27.0%), 친구 또는 선후배(21.2%)를 통한 구직정보 취득 비중이 특히 높으며, 학교(11.6%), 부모 또는 친척(10.5%)을 통한 구직정보 취득(14.0%)도 중요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⁶⁾ 반면 사설취업알선기관이나 직업 및 취업박람회, 그리고 학원 등을 통해 구직정보를 취득한 졸업생 비중은 매우 낮았다.

통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에는 현 직장 구직정보 취득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의수준 역시 대단히 높았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은

〈표 6〉 수도권·지방별 현 직장 구직정보 취득경로: 1순위

(단위: 명, %)

	학교 (선생님 등)	신문, TV등 언론매체	생활정보 지	부모 또는 친척	친구 또는 선후배	공공취업 알선기관	사설취업 알선기관	검정 통계량
전 체	77(13.1)	53(9.0)	34(5.8)	63(10.7)	110(18.7)	28(4.8)	4(0.7)	$\chi^2 = 31.028$ P=0.002
수도권	24(11.6)	20(9.7)	4(1.9)	17(8.2)	37(17.9)	5(2.4)	1(0.5)	
지 방	53(13.9)	33(8.7)	30(7.9)	46(12.1)	73(19.2)	23(6.0)	3(0.8)	
	PC통신, 인터넷	회사에 직접 연락	직업 및 취업박람회	학원	현장실습/ 인턴십	기타		
전 체	172(29.2)	9(1.5)	8(1.4)	5(0.8)	8(1.4)	17(2.9)		
수도권	85(41.1)	3(1.4)	2(1.0)	2(1.0)	2(1.0)	5(2.4)		
지 방	87(22.8)	6(1.6)	6(1.6)	3(0.8)	6(1.6)	12(3.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6) 2001년 대상자를 중심으로 첫 일자리의 구직정보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21.8%)를 통한 구직정보 취득 비중이 친구나 선후배(14.0%)를 통한 구직정보 취득 비중보다 높았다. 현 직장에는 첫 직장도 두 번째 이상의 직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첫 일자리의 구직정보 경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일자리의 구직정보 취득경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류장수(2003b), pp.176~177 참조.

41.1%로 지방대학 졸업생의 동일 항목 비중(22.8%)보다 크게 높았다. 친구 또는 선배로부터 구직정보를 얻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비중은 17.9%로 비교적 높으나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한편 지방대학 졸업생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3. 종사상 지위와 직장형태

가. 종사상 지위

조사대상 대학졸업생 중 현 직장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94.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를 통해 일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졸업생은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79.1%로 현 직장의 종사상 지위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15.0%였다.⁷⁾

〈표 7〉 수도권·지방별 현직장의 종사상의 지위:대학졸업생

(단위: 명,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검정통계량
	정규직	비정규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465(79.1)	88(15.0)	10(1.7)	22(3.7)	3(0.5)	$\chi^2 = 9.403$
수도권	168(81.2)	27(13.0)	7(3.4)	5(2.4)	5(0.0)	P=0.052
지방	297(77.9)	61(16.0)	3(0.8)	17(4.5)	3(0.8)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7) 2001년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를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임금근로자', '계약기간 1년 초과인 임금근로자', '고정된 사업장 없이 일하는 임금근로자'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적지 않은 사업체에서 서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항목의 응답자 중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자료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워 2002년 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명시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의 현 직장의 종사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5% 유의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과 종업원을 둔 고용주 비중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에서 보다 높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지방대학 졸업생에서 약간 더 높다.

나. 직장 형태

청년층 대학졸업생들의 현 직장 형태로는 민간회사 혹은 개인사업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65.0%가 민간회사 혹은 개인사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과 법인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비중은 약 30%에 이르고 있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의 첫 직장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표 8〉 수도권·지방별 현 직장의 형태

(단위: 명, %)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 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사합동 기업	(재단, 사단)법인 단체	정부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기타	검정 통계량
전 체	382(65.0)	12(2.0)	36(6.1)	62(10.5)	76(12.9)	6(1.0)	14(2.4)	$\chi^2 = 7.235$
수도권	138(66.7)	5(2.4)	6(2.9)	23(11.1)	28(13.5)	1(0.5)	6(2.9)	P=0.299
지 방	244(64.0)	7(1.8)	30(7.9)	39(10.2)	48(12.6)	5(1.3)	8(2.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4. 일의 내용과 수준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을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전체적으로 과잉교육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 전체의 25.5%가 교육수준 대비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이 낮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높았다고 답변한 비중은 2.4%에 불과하였다. 교육수준과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이 적합하였다고 답변한 비중은 72.1%였다.

교육수준에 대비하여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수도권대

<표 9> 수도권·지방별 교육수준 대비 현 직장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

(단위: 명, %)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다	수준이 높다	검정통계량	
전 체		150(25.5)	424(72.1)	14(2.4)	$\chi^2 = 0.443$	
수도권		51(24.6)	152(73.4)	4(1.9)	P=0.801	
지방		99(26.0)	272(71.4)	10(2.6)		
학력	전문대졸	수도권	24(21.2)	88(77.9)	1(0.9)	$\chi^2 = 4.019$
		지방	55(27.8)	136(68.7)	7(3.5)	P=0.134
	대졸	수도권	71(34.3)	113(54.6)	23(11.1)	$\chi^2 = 0.0795$
		지방	135(35.4)	205(53.8)	41(10.8)	P=0.96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여부에 관계없이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의 '교육수준 대비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유사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고 있다. 한편 학력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일정한 차이가 보이는데, 4년제 대졸자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대졸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하향취업의 현상이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 모두 4년제 대졸자의 하향취업 현상이 전문대졸보다 높았다.

전공 대비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 10>이다. 이 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전체의 35%가 전공과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이 전혀 맞지 않았으며, 아주 잘 맞았다는 응답자는 10.9% 수준에 불과하였다. 양자가

<표 10> 수도권·지방별 전공 대비 현 직장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

(단위: 명, %)

		전혀 맞지 않다	그런대로 맞다	아주 잘 맞다	검정통계량	
전 체		206(35.0)	318(54.1)	64(10.9)	$\chi^2 = 0.079$	
수도권		71(34.3)	113(54.6)	23(11.1)	P=0.961	
지방		135(35.4)	205(53.8)	41(10.8)		
학력	전문대졸	수도권	38(40.4)	48(51.1)	8(8.5)	$\chi^2 = 0.427$
		지방	67(36.6)	98(53.6)	18(9.8)	P=0.808
	대졸	수도권	33(29.2)	65(57.5)	15(13.3)	$\chi^2 = 0.905$
		지방	68(34.3)	107(54.0)	23(11.6)	P=0.636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그런대로 맞았다고 답변한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의 전공 대비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여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는 기각되었다.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전문대에서는 수도권대학 졸업생, 4년제 대학에서는 지방대 졸업생이 '전공과 현 직장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수준 간의 부적합'(mismatching)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5. 사업체 규모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사업체 규모는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작다. 지방대 졸업생 중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비중은 15.5%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19.3%보다 낮으며, 1~29인의 사업체 규모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생은 54.9%, 수도권대학 졸업생은 41.1%로 지방대학 졸업생에서 높다. 그리고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학 졸업생 간에 현 직장의 사업체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높은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지방 전문대 졸업생과 4년제 대학 졸업생 모두 수도권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현 직장의 사업체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표 11〉 수도권·지방별 현 직장의 사업체 규모:대학졸업생

(단위: 명, %)

			1~29	30~99	100~299	300이상	검정통계량
전 체			294(50.0)	127(21.6)	68(11.6)	99(16.8)	$\chi^2 = 10.301$
수도권			85(41.1)	53(25.6)	29(14.0)	40(19.3)	P=0.016
지 방			209(54.9)	74(19.4)	39(10.2)	59(15.5)	
학력	전문대졸	수도권	44(46.8)	25(26.6)	13(13.8)	12(12.8)	$\chi^2 = 8.639$
		지 방	109(59.6)	29(15.8)	14(7.7)	31(16.9)	
	대졸	수도권	41(36.3)	28(24.8)	16(14.2)	28(24.8)	$\chi^2 = 7.988$
		지 방	100(50.5)	45(22.7)	25(12.6)	28(14.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6. 직업과 직장의 만족도

여기에서는 직업과 직장의 만족도를 현 직업·직장에 대한 평생 직업·직장으로의 인

식 유무, 현 직장을 계속 다닐 의사, 그리고 현 취업자의 향후 진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2년 당시 청년층에 있는 대졸자들의 직업 및 직장의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수도권·지방별 현 직업·직장에 대한 평생 직업·직장 인식 유무

(단위: 명, %)

		예	아니오	검정통계량
현 직업	전 체	267(45.4)	321(54.6)	$\chi^2 = 1.084$
	수도권	100(48.3)	107(51.7)	P=0.298
	지 방	167(43.8)	214(56.2)	
현 직장	전 체	209(35.5)	379(64.5)	$\chi^2 = 0.066$
	수도권	75(36.2)	132(63.8)	P=0.797
	지 방	134(35.2)	247(64.8)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먼저 현 직업이나 직장을 평생 직업이나 직장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중은 무려 64.5%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불만족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 직업·직장을 평생 직업·직장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이나 지방대학 졸업생 모두에게서 관찰되는 특성이며, 양자간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현 직장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현 직장을 떠날 의사를 지닌 청년층 대졸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즉 조사대상자의 64.5%의 청년층 대졸자가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떠날 의사를 지닌 비중은 2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쉽지 않음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현 취업자의 향후 진로에서의 차이를 보면,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5% 유의수준에서 확인된다. 직업을 전환하려는 비중은 46.3%인데, 수도권대학 졸업생이 35.6%인 데 비해 지방대학 졸업생은 51.7%로 지방대학 졸업생에게서 더욱 높았다. 다른 문항들과 비교하여 직업전환의 문항은 현재의 취업상태에 대한 불만 수준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그런 점에서 현 취업자의 향후 진로에 관한 질문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 수준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수도권·지방별 현 직장 계속 다닐 의사

(단위: 명, %)

	예	아니오	검정통계량
전 체	454(77.2)	134(22.8)	$\chi^2 = 0.2002$
수도권	162(78.3)	45(21.7)	P=0.655
지 방	292(76.6)	89(23.4)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표 14〉 현 취업자의 향후 진로

(단위: 명, %)

	상급학 교로의 진학	유학	편입학	직업전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준비	개인사업 및 창업	결혼	기타	검정통계량
전 체	6(4.5)	3(2.2)	6(4.5)	62(46.3)	16(11.9)	19(14.2)	5(3.7)	17(12.7)	$\chi^2 = 15.436$
수도권	1(2.2)	2(4.4)	1(2.2)	16(35.6)	7(15.6)	7(15.6)	0(0.0)	11(24.4)	P=0.031
지 방	5(5.6)	1(1.1)	5(5.6)	46(51.7)	9(10.1)	12(13.5)	5(5.6)	6(6.7)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2.

IV.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1. 이행기간

이행기간은 첫 일자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 경과한 기간으로 정의하며, 첫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졸업 이후 조사시점까지 경과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의 평균 이행기간을 계산할 때,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0으로 처리하였다.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을 분석하는 것이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의 취업실태를 엄밀히 비교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지방대학 졸업생이 더욱 장기

〈표 15〉 수도권·지방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분포:대학졸업자

(단위: 명, %)

		<0	0~3개월	4~6개월	7~12개월	1~2년	2년 이상	평균	검정통계량	
전 체		199 (18.4)	314 (29.0)	90 (8.3)	172 (15.9)	168 (15.5)	141 (13.0)	9.7		
수도권		67 (20.2)	110 (33.1)	32 (9.6)	50 (15.1)	44 (13.3)	29 (8.7)	7.9	$x^2 = 13.231$	
지 방		132 (17.6)	204 (27.1)	58 (7.7)	122 (16.2)	124 (16.5)	112 (14.9)	10.5	$P = 0.021$	
영남		76 (18.9)	105 (26.1)	30 (7.5)	66 (16.4)	54 (13.4)	71 (17.7)	11.3	$x^2 = 33.783$	
호남		22 (12.6)	49 (28.0)	15 (8.6)	31 (17.7)	30 (17.1)	28 (16.0)	10.8	$P = 0.004$	
충청		25 (19.8)	36 (28.6)	7 (5.6)	21 (16.7)	29 (23.0)	8 (6.4)	8.2		
학력	전문대졸	수도권	21 (15.0)	48 (34.3)	13 (9.3)	28 (20.0)	19 (13.6)	11 (7.9)	8.5	$x^2 = 11.564$
		지 방	58 (16.6)	93 (26.6)	22 (6.3)	57 (16.3)	57 (16.3)	63 (18.0)	12.0	$P = 0.041$
	대졸	수도권	46 (24.0)	62 (32.3)	19 (9.9)	22 (11.5)	25 (13.0)	18 (9.4)	7.4	$x^2 = 7.079$
		지 방	74 (18.4)	111 (27.6)	36 (9.0)	65 (16.2)	67 (16.7)	49 (12.2)	9.2	$P = 0.215$
전공	인문계열	수도권	20 (18.9)	36 (34.0)	10 (9.4)	12 (11.3)	14 (13.2)	14 (13.2)	9.3	$x^2 = 2.728$
		지 방	33 (17.1)	58 (30.1)	12 (6.2)	25 (13.0)	32 (16.6)	33 (17.1)	10.4	$P = 0.742$
	사회계열	수도권	13 (19.1)	22 (32.4)	8 (11.8)	12 (17.7)	9 (13.2)	4 (5.9)	6.7	$x^2 = 3.646$
		지 방	35 (21.1)	45 (27.1)	15 (9.0)	27 (16.3)	21 (12.7)	23 (13.9)	10.1	$P = 0.602$
	이공계열	수도권	34 (21.5)	52 (32.9)	14 (8.9)	26 (16.5)	21 (13.3)	11 (7.0)	7.4	$x^2 = 10.557$
		지 방	64 (16.3)	101 (25.7)	31 (7.9)	70 (17.8)	71 (18.1)	56 (14.3)	10.7	$P = 0.06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화하였다. 먼저 분석대상 전체의 첫 일자리 평균 이행기간은 9.7개월이었다. 이 중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 평균기간은 졸업 후 7.9개월 소요된 반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10.5개월 소요되어 지방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획득이 더욱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전공별 수도권/지방간 첫 일자리 이행기간 역시 지방대 졸업생에서 더욱 장기간 소요되었다. 학력별·전공별 모두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더욱 길지만, 전문대 및 이공계열에서 이행기간 분포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특히 높다. 지방의 전문대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 평균기간은 12.0개월로 수도권 전문대 졸업생의 8.5개월에 비해 훨씬 길며, 계열별로는 이공계열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행기간 분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측면에서 본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의 차이와 함께 지방의 권역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지방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과 지방 간에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충청권 지역 대학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 평균기간은 졸업후 8.2개월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슷한 반면, 영남권 및 호남권 지역 대학졸업생의 이행 평균기간은 11.3개월, 10.8개월로 더욱 길었다.⁸⁾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간의 첫 일자리 소요기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였다. 조사시점에서 취업 미경험자의 경우 미취업기간은 불완전한 관찰치이다. 해저드 모형은 관측기간 동안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절단(right-censoring)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해저드 함수 $h(t)$ 는 어떤 사건(T)이 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Cox 비례해저드 회귀분석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는데, Cox 모형을 활용하면 기본 해저드의 분포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설명변수가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설명변수로는 성, 학력, 전공계열, 부모의 학력, 가구의 근로소득, 그리고 졸업대학 소재지를 포함하였다.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모형 1은 수도권과 지방 전체로, 모형 2는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한 것이 두 모형 간의 차이이다.

8) 분석대상자의 졸업 연도는 1992년에서 2001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이 어떤 특정 연도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16〉 첫 일자리 이행 해저드 추정결과: Cox 해저드 분석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남성 더미	-0.126 *	0.078	-0.138 *	0.081
대졸 더미	0.194 **	0.076	0.203 ***	0.079
사회계열 더미	0.143	0.104	0.140	0.106
이공계열 더미	0.025	0.090	0.020	0.092
아버지 고졸 더미	-0.087	0.091	-0.096	0.094
아버지 전문대졸 이상 더미	-0.218	0.135	-0.210	0.139
어머니 고졸 더미	-0.089	0.097	-0.086	0.099
어머니 전문대졸 이상 더미	0.194	0.219	0.197	0.223
가구 근로소득	0.001 ***	0.000	0.001 ***	0.000
지방 더미	-0.225 ***	0.082	-	-
영남더미	-	-	-0.259 ***	0.091
호남더미	-	-	-0.294 ***	0.116
충청더미	-	-	-0.073	0.128
-2 LOG L	5472.14		5199.56	
Wald Chi-Square	30.23		33.65	
표본수	999		954	

주: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모형 1을 추정한 결과 지방대학 졸업생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은 1% 유의수준에서 낮았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이 높았으며, 전문대졸자에 비해 대졸자의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이 5% 유의수준에서 높았다. 계열별 차이와 부모의 학력수준은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근로소득이 높은 대졸자일수록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이 높았다.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분포와 평균기간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충청권대학 졸업생 간에는 첫 일자리 이행에 차이가 없으며, 이들 지역 졸업생은 영남권과 호남권 대학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더욱 짧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2. 사업체 규모

졸업생이 취업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론에 의하면, 대기업은 1차노동시장으로 고임금,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정이 일정하다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대 졸업생의 대규모 사업체 취업 비율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방대 졸업생 중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첫 일자리를 얻는 비중은 12.5%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21.5%에 비하면 크게 저조하였다. 그리고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학 졸업생 간에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지방 전문대 졸업생과 4년제 대학 졸업생 모두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가 보다 작은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 분석에서도 충청권 지역과 영남권·호남권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충청권 지역 대학졸업생의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는 영남권 및 호남권 지역 대학졸업생의 그것보다 더욱 컸다. 예를 들어 충청권 지역 대

〈표 17〉 수도권·지방별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대학졸업생

(단위: 명, %)

		1~29	30~99	100~299	300 이상	검정통계량	
전 체		467(49.3)	220(23.2)	115(12.1)	145(15.3)		
수도권		130(43.8)	73(24.6)	30(10.1)	64(21.5)	$\chi^2 = 15.515$	
지 방		337(51.8)	147(22.6)	85(13.1)	81(12.5)	$P = 0.001$	
영 남		190(55.2)	74(21.5)	41(11.9)	39(11.3)	$\chi^2 = 32.376$	
호 남		81(54.4)	34(22.8)	15(10.1)	19(12.7)	$P < .001$	
충 청		36(32.7)	31(28.2)	22(20.0)	21(19.1)		
학 력	전문대졸	수도권	60(49.6)	31(25.6)	10(8.3)	20(16.5)	$\chi^2 = 6.219$
		지 방	163(54.7)	64(21.5)	41(13.8)	30(10.1)	$P = 0.101$
	대졸	수도권	70(39.8)	42(23.9)	20(11.4)	44(25.0)	$\chi^2 = 9.703$
		지 방	174(49.4)	83(23.6)	44(12.5)	51(14.5)	$p = 0.02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졸자 중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첫 일자리를 얻은 비중은 19.1%로 영남권 11.3%와 호남권 12.7%보다 높았다.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면에서도 충청권 지역 대졸자는 수도권 대졸자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른 지방과는 차별성이 존재하였다.

3. 임금수준

대학교육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중 대표적인 것들로는 취업 여부와 임금수준을 들 수 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취업 여부, 사회적으로는 취업률 수준이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 다른 사정이 일정할 때 취업자는 미취업자보다, 그리고 높은 취업률 수준은 낮은 취업률의 경우보다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 여부 및 취업률 변수는 일자리의 특성과 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 변수이다. 그런 점에서 임금수준 변수는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 변수라는 점에서 취업 여부 및 취업률을 보완하는 노동시장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도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양자간의 노동시장 성과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여기에

〈표 18〉 수도권·지방별 첫 일자리 월평균임금:대학졸업생

(명, 만원)

	표본수	월평균임금		검정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t	Pr> t
전 체	919	99.8	61.0		
수도권 지 방	287	110.7	95.6	3.7	0.0002
	632	94.8	34.6		
전문대졸	114	93.2	30.3	1.40	0.163
	292	88.2	32.9		
대졸	173	122.3	119.3	3.12	0.002
	340	100.4	35.1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서는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에 국한하여 월 평균임금을 2000년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그 결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월 평균임금은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약 16만 원 정도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높은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전문대졸과 대졸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 전문대 졸업생의 임금수준은 통계적으로 수도권 전문대 졸업생의 임금수준보다 낮지 않은 반면,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지방대 졸업이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4.149 ***	0.045	4.137 ***	0.046
남성 더미	0.191 ***	0.027	0.194 ***	0.028
기혼 더미	0.072 **	0.033	0.082 **	0.034
대졸 더미	0.117 ***	0.025	0.124 ***	0.026
사회계열 더미	-0.006	0.034	-0.007	0.036
이공계열 더미	0.015	0.029	0.020	0.030
아버지 고졸 더미	0.000	0.030	0.005	0.032
아버지 전문대졸 이상 더미	0.036	0.046	0.034	0.047
어머니 고졸 더미	0.043	0.033	0.040	0.034
어머니 전문대졸 이상 더미	0.085	0.069	0.074	0.071
가구 근로소득	0.001 ***	0.000	0.001 ***	0.000
비정규직 더미	-0.087 **	0.039	-0.089 **	0.042
사업체규모 30~299인 더미	0.124 ***	0.027	0.110 ***	0.028
사업체규모 300인 이상 더미	0.188 ***	0.037	0.172 ***	0.038
근속(월)	0.005 ***	0.001	0.005 ***	0.001
첫 일자리 이행기간(월)	-0.000	0.001	0.001	0.001
지방 더미	-0.064 **	0.027	-	-
영남더미	-	-	-0.062 **	0.031
호남더미	-	-	-0.129 ***	0.039
충청더미	-	-	-0.004	0.042
Adj R ²	0.249		0.254	
F 값	17.19 ***		15.04 ***	
표본수	781		745	

주: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지방대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보다 낮은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먼저 첫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통제한 후 출신대학 소재지별 차이의 효과를 분석할 목적으로 월 평균임금의 자연대수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상적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모형 1은 수도권과 지방 전체로, 모형 2는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한 것이 두 모형 간의 차이이다.

모형 1의 분석 결과, 지방대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비해 낮다는 것이 5%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예상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4년제 대졸자가 전문대졸자보다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통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서도 충청권 지역과 영남권·호남권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충청권 지역 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영남권 및 호남권 지역 대학졸업생의 그것보다 더욱 높았다. 이처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충청권대학 졸업생 간에는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차이가 없으며 이들 지역 졸업생은 영남권과 호남권대학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 임금수준이 더욱 높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V. 맺음말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03년과 2004년의 지방대 미충원율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4년제 일반대 미충원율의 전국 평균은 11.7%였으며 전문대의 미충원율 전국 평균은 18.7%였다. 그런데 수도권대학의 미충원율은 4년제 일반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각각 2.1%, 3.2%, 2.0%에 불과하였으나,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각각 5.7%, 18.5%, 28.0%로 수도권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의 미충원율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앙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직정보의 취득경로를 중심으로 현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의수준 역시 대단히 높았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현 취업자의 향후 진로에서도 지방대학 졸업생과 수도권대학 졸업생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5% 유의수준에서 확인된다. 즉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 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에서는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의 「제1차 청년패널조사」(2001년) 자료에서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모두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었다. 즉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의 이행기간이 보다 길었고,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도 작았으며, 임금수준 역시 낮았다. 이 모두 매우 높은 유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을 수도권과 지방 간의 비교라면,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과 지방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방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나눠 각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 사업체 규모, 임금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적어도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충청권 대학졸업생은 이미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의 대학졸업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대학 혹은 지방대 졸업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

9)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낮은 이유는 크게 '질'의 저위성과 취업시장에서의 차별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이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질'의 차이를 석출할 수 있는 변수 설정 및 자료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한다.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혁신을 성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대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획기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 이전 등은 해당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이 현실화될 때 지역의 우수 인력이 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고 그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단기적으로 지방대 졸업생들에 대한 채용장려제 등을 실시하여 현재와 같은 '지방의 인력 유출 → 지방대 위기 → 지방 위기 → 지방의 인력 유출'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단절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방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지방대 졸업생 간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도 확인했지만, 지방과 지방 즉 충청권 지역 대졸자와 영·호남권 지역 대졸자 간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호남권 대학 졸업생의 그것보다 높았으며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성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지방 권역 간의 격차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방안」. 『누리사업 정책자료집 [1]』 (2004. 9): 207~219.
- 김형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대구: 대구사회연구소, (2001. 11): 16~31.
- 김형만 외.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_____.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김형만·류장수·장원섭·강영호.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을 위한 지방대생 민간기업 취업현황 파악 연구』. 미발표 보고서, 2004.
- 류장수.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방안」. 『지역사회연구』 10권 2호 (2002. 12):

1~20.

- _____.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6권 1호 (2003. 6): 1~25. (a)
- _____.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9권 1호 (2003. 8): 171~196. (b)
- _____. 「고등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방안」, 이병식 편저,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pp. 231~25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교육체제 개혁 10대 과제 연구』, 2000.
-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병희 외.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이원덕·류장수 외. 『인적자원개발·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 이주호. 「시도별 대학 미충원을 분석」 보도자료. 이주호 의원실 (2004. 9. 19): 1~7.
-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2002.
- OECD. *Territorial Development and Human Capital In The Knowledge Economy: Towards A Policy Framework*. 1996.
- _____.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Skill*. 1997.
- _____. *The Respons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Regional Needs*. 1999. (a)
- _____. *Best Practices In Local Development*. 1999. (b)
- OECD.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Outcome in Labor Market of Provincial University Graduates

Jang-Soo Ryu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outcomes in labor market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And For this aim, this study used 'Youth Panel Data' (2001, 2002) of HRD Korea Work Information Center. The reference groups are students who graduated from capital region colleg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job information than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get first job in smaller firm than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The monthly wage level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ovincial colleges is less than that of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the outcomes in labor market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Chungcheong region colleges are better than those of students who graduated from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colleges. A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rovincial college graduates and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Chungcheong region college graduates and another region (namely,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college graduates.

Key Words: Provincial College Graduates, Capital Region College Graduates, Outcomes in Labor Market, Regional Innovation, First Job